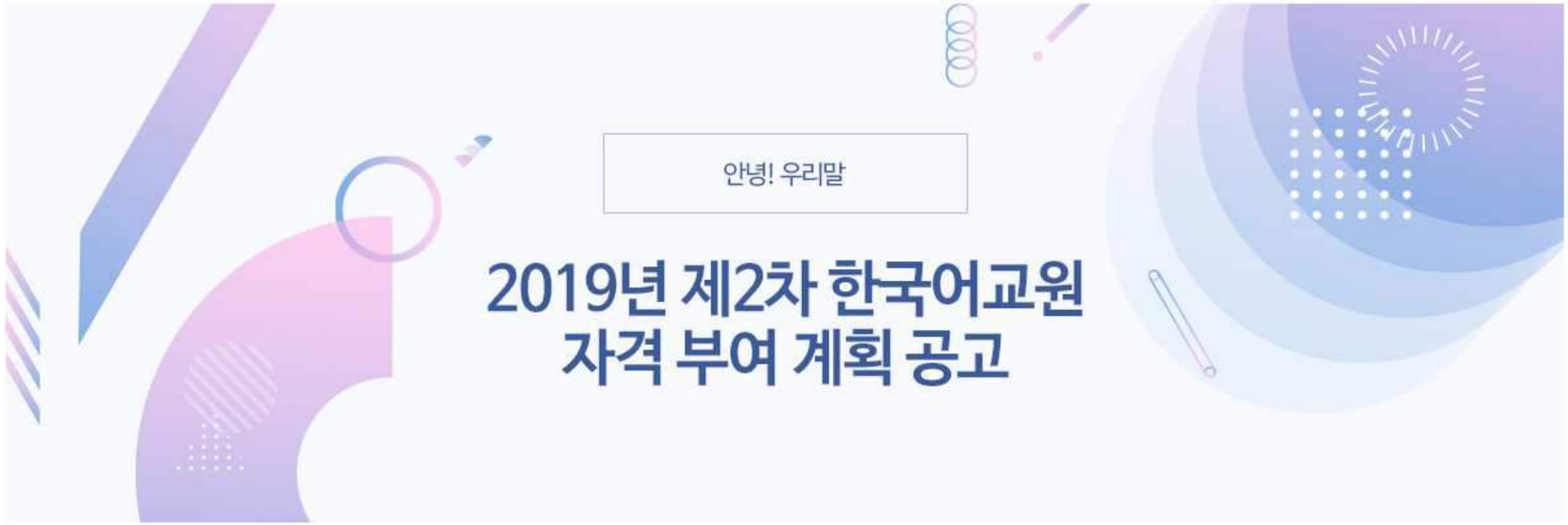
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2019년 8월 13일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심사 신청 절차

1. 한국어교원 누리집 접속,
개인 회원 등록 후 등록한 전자우편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2. ‘심사 신청-한국어교원 자격(개인)’ 단추를 누름
3. 신청서 기재 사항 입력 **(사진 첨부)**
4. ‘신청서 제출’ 단추를 누름
(임시 저장만 눌렀을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음)
5. ‘신청서 인쇄’ 단추를 눌러 신청서를 인쇄(컬러, 흑백 모두 가능)
6. 심사 신청서 및 해당 서류 우편 발송
서류 발송 후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서류 접수 여부 확인 가능

2. 신청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발송

○ 신청 기간 내에 ①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후 ② 관련 서류가 발송되어야 심사 신청이 완료됨.

○ 온라인 접수 마감: 2019. 9. 10.(화) 18시

○ 서류 우편 발송: 2019. 9. 10.(화)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해당 날짜의 소인이 찍혀 있으면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도 인정**

○ 서류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 우편 발송 주소: (우)07511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3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 국제우편의 경우, 빠른 국제우편으로 발송(신청 기간 내의 소인이 찍혀도, 서류 도착이 신청 마감일로부터 3주 이상 경과하여 도착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 심사 절차: 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별 자격 요건 및 서류 등 검토하고,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후 확정함

○ 심사 접수 기간: 2019. 9. 2.(월) 9시~2019. 9. 10.(화) 18시

○ 심사 결과 발표: 2019. 11. 1.(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자격증 교부 시기: 2019년 11월 말

※ 심사 관련 주의 사항 및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누리집 혹은 전자우편(kteacher@korea.kr), 전화(02-2669-9671~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이승현 아나운서에게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강의는 '아나운서가 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 주는 일이다. 가능성이 무한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칠 수 있어 방송을 할 때보다 보람이 더 크다고 한다. 그 즐거운 중독성 때문에 올해도 어김없이 아이들의 든든한 우리말 선생님으로 나섰다.

얘들아, 우리말 공부하자!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단어가 모두 몇 갠지 아세요? 현재 무려 40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은 이렇게 풍부한 어휘들을 적절하게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요? 습관적으로 몇 단어만 쓰면서 스스로 언어 능력이 발달할 기회를 없애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승현 아나운서가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강의에서 아이들에게 던진 질문이다. 국어사전에 그토록 많은 단어가 수록되어 있다고 하니, 듣고 있던 아이들이 일제히 놀란다.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은 한국방송 아나운서들이 직접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찾아가 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전하는 교육 사업으로 한국방송 아나운서실의 한국어연구회가 올해로 9년째 진행하고 있다. 이승현 아나운서는 2016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해 강의부터 주제 선정, 교안 만드는 일까지 책임진다.

올해는 ‘다양성의 이해’를 주제로 아나운서들이 전국의 105개 학교를 찾아간다. 학생들이 평소 무심코 쓰는 장애, 성, 인종과 관련된 차별적인 표현들을 일깨워 주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려면 어떤 말을 써야 하는지 알려 준다.

“요즘 아이들은 나쁜 말만 쓰고, 바른 우리말에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있는데, 정말 편견이에요. 수업 시간 내내 얼마나 눈빛이 초롱초롱한데요. 아이들의 반응이 얼마나 폭발적인지, 마치 ‘뮤직뱅크’ 무대에 선 아이돌 가수가 된 것 같다니까요.(웃음) 한편으론 어른들이 고운 말을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나쁜 말에 길들여진 건 아닌가, 씁쓸하기도 해요.”

내 직업의 정체성을 실감하는 일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사업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따로 나이대를 정한 이유가 있을까?

"이 시기의 아이들은 뭐든 잘 흡수해요. 주변 친구들이나 누리그물에서 접한 나쁜 언어에 물들기 쉽죠. 또래 집단 문화가 강하니까요. 다행스러운 건 좋은 쪽으로도 흡수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나이대가 언어 습득력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거의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바른 우리말 표현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강연 현장 (한국방송 제공)

요즘은 현장에 자주 나가기보다는 기획과 교안을 만드는 데 더 몰두하고 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를 재미있게 구성하려고 현직 선생님들과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자주 쓰는 비속어, 줄임말에 해당하는 바른 표현을 알아보는 시간과, 문제 맞추기, 영상 보기, 자신이 쓰고 있던 차별적인 표현 확인하기 등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강의에 참여할 수 있게 알차게 꾸며졌다.

"요즘 아이들이 자주 쓰는 비속어 중에 '쩐다' 라는 말이 있어요. '퍽', '정말', '무척' 이런 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알려 주죠. 또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무심코 쓰는 표현 중에 '진지충', '관종', '된장녀' 같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차별·혐오 표현이라는 걸 일깨워 줍니다. 바르고 고운 말을 써야 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실생활에서 바로 변할 수 있게 대체 표현을 가르쳐 주고, 왜 나쁜 언어 습관을 고쳐야 하는지 이유까지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강의가 진행될수록 아이들뿐 아니라,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더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이다. 자신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고 크게 반성했다는 말은 자주 전해 듣는 소감이다.

그가 아나운서로서 하는 업무 중에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은 대중들과 가장 가깝게 만나는 일이다. 많은 정성이 필요한 일인 만큼 고되긴 하지만, 그걸 잊을 만큼 보람이 크다.

"저도 15개월 된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에게 직접 바른 언어 표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일이 참 좋아요. 아나운서는 바른 우리말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을 할 때도 늘 언어 표현에 신경을 쓰지만, 이 일이 제가 아나운서라는 걸 가장 실감하게 해 줘요."

방송 중에도 국어사전을 찾아봐요

강의 준비를 하거나 방송 준비를 할 때 가장 든든한 동반자는 다름 아닌 국어사전이다. 매일 텔레비전 방송인 〈생방송 아침이 좋다〉, 라디오 방송인 〈국악의 향기〉를 진행하는데, 헷갈리거나 궁금한 표현이 있으면 방송 중간에도 몰래 휴대전화를 열고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검색한다. 언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게 즐겨찾기를 해 뒀다.

강의 준비를 할 때는 '우리말샘'에서 다양한 예문을 찾아본다. 예전에는 국립국어원의 '가나다 전화'도 자주 활용했지만, 요즘은 카카오톡에 '우리말365'를 친구추가해 두고 이용한다.

몇 년 전 〈스포츠 9〉을 진행할 때는 어려운 스포츠 용어들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 쓰려 애썼다. '전지훈련'같은 일본식 표현도 되도록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스포츠 뉴스 마지막에 '오늘의 골 세리머니입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대신할 말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골 뒤풀이'라고 했더니, 시청자가 항의한 적이 있었어요. 익숙한 말을 놔두고 어색한 말을 쓴다고요. 우리말다움과 익숙함 사이의 적절한 부분을 저 같은 아나운서나 우리말과 관련된 사람들이 더 많이 고민해야 겠지요."

이승현 아나운서는 앞으로 우리말과 관련해 시도해 보고 싶은 일이 많다. 한국방송 아나운서실의 한국어연구회에서 활동하 면서 그런 바람이 더 커졌다. 한국어연구회는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사업 외에도 '한국어 포스터 특별전시회', 라디오 '바른 말 고운 말'방송, '한국어 상담전화' 운영 등 다양한 활동 으로 바른 한국어 사용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한국어연구회에 속한 아나운서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모두 훌륭한 우리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이 충분한 인재들이죠. 국립국어원과 우리 아나운서들이 뭉쳐서 신뢰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국립국어원의 연구와 아나운서들의 전달력이 합쳐지면 멋진 결과물이 탄생하지 않을까요?"

▲ 한국어연구회에서 만든 우리말 포스터 (한국방송 제공)

먼 훗날을 꿈꾸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과 방송에 매진하겠다는 이승현 아나운서. 누구보다 우리말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기꺼이 나눠 주고 싶다는 그의 마음이 고운 우리말처럼 향기롭다.

글: 정성민
사진: 김장현, 한국방송

놀라운 우리말

우리말을 여행하다

찰나의 우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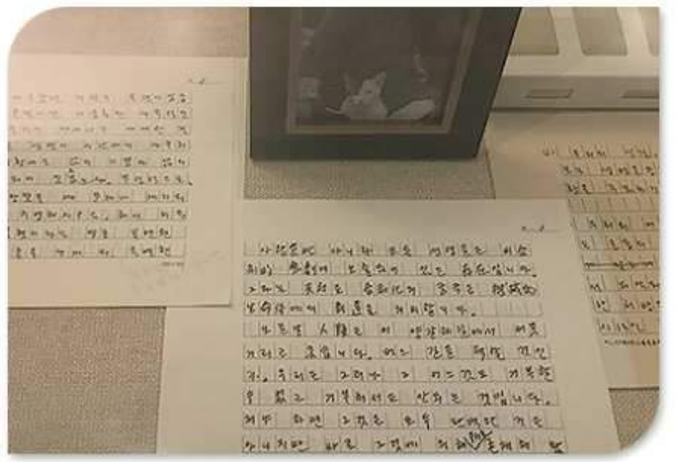
▸ 놀라운 우리말 ▸ 우리말을 여행하다

통영은 예향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소설가, 시인, 음악가, 화가 등 수많은 예술가를 낳았다. 특히 아름다운 글을 남긴 문인들이 많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골목골목을 걷다 보면 정겨운 우리말을 재발견하게 된다.

서울에서 자동차를 타고 대진고속도로를 5시간쯤 달리면 우리나라의 남쪽 끝인, 통영에 도착한다. 첫 목적지인 박경리기념관까지는 400킬로미터쯤 된다. 이토록 먼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온 이유는 조금 남다르다. 그 흔한 먹고 쉬는 여행이 아닌, 느긋하게 우리말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여행이기 때문이다. 부슬비가 내렸다가, 다시 햇빛이 쨍하게 비춘다. 이번 통영 여행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함께 다.

우리말을 따라 느루 거닐다. 박경리기념관

박경리기념관은 통영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산양읍에 자리 잡고 있다. 2010년에 문을 연 이 기념관은 한국 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소설가 박경리의 삶과 문학을 기리는 뜻에서 건립되었다. 그의 작품과 생애를 알 수 있는 연보, 어록, 친필 원고, 풋풋했던 젊은 시절부터 원숙한 노년까지의 사진들, 서재를 재현한 공간 등을 볼 수 있다. 일생을 문학과 함께한 박경리 작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장소이다.



기념관에서는 그가 평소 집필하던 원주의 서재를 재현한 공간이 특히 눈길을 끈다. 작가에게 서재란 연필 한 자루에 의지해 원고지 뭉치와 싸우는 치열한 전쟁터요, 가장 내밀한 공간이다. 서재에는 그가 생전에 몹시 아꼈다는 통영 나비장, 자개 장식 연필꽂이, 통영 바다 색을 닮은 쪽빛 두루마기 등이 소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책상 옆에 놓인 두꺼운 국어사전이다. 얼마나 자주 들춰 봤는지 겉표지가 반질반질하다. 평생을 글쓰기에 바친 작가에게 국어사전은 주옥같은 언어를 퍼 올리는 마르지 않는 샘이었으리라. 그 안에서 가장 알맞은 언어를건져 내려 부지런히 담금질했을 그의 모습이 그려진다.

박경리의 소설『김약국의 딸들』은 통영이 무대다.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유족한 한 가정이 욕망과 운명에 휘말려 몰락해 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첫 장은 통영을 묘사하며 시작한다.

통영은 다도해 부근에 있는 조촐한 어항이다. 부산과 여수 사이를 내왕하는 항로의 중간 지점으로서 그 고장의 젊은이들은 '조선의 나폴리'라 한다. (중략) 바다 빛이 고운 탓이었는지 모른다. 노오란 유자가 무르익고, 타는 듯 붉은 동백꽃이 피는 청명한 기후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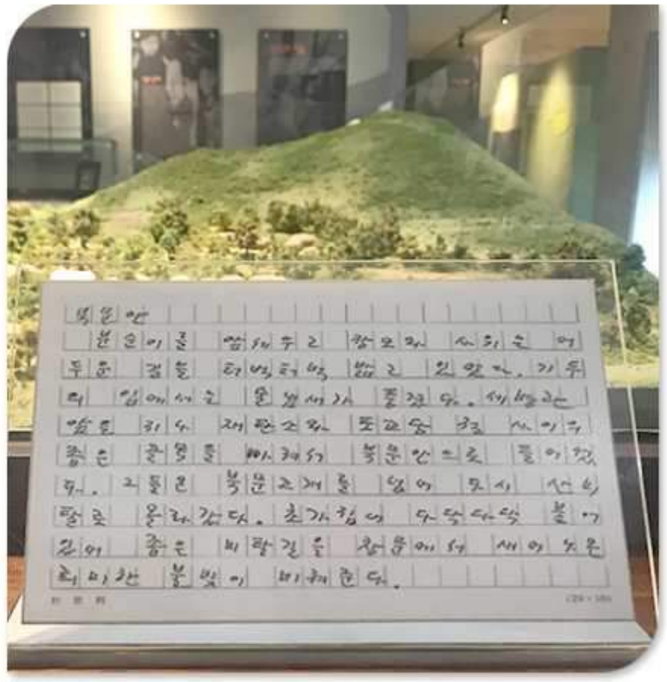
-박경리, 『김약국의 딸들』

맑고 푸른, 노오란 유자, 붉은 동백꽃……. 통영의 풍광이 머릿속에 원색으로 그려지는 생생한 묘사다. 단 몇 마디만으로 눈앞에 통영의 매력을 펼쳐 놓는 작가의 글솜씨에 탄복하게 된다.

박경리기념관 한가운데에는 통영 지역의 실사 모형이 있다. 여기에『김약국의 딸들』의 배경이 된 북문안, 간창골, 서문고개 등이 표시되어 있다. 모형 앞에는 이 지역들을 배경으로 한 구절의 친필 원고가 전시되어 있어 소설 장면을 떠올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

기념관 바로 뒤편의 숲길은 박경리공원으로 꾸며져 있다. 방금 엿본 작가의 삶을 곱씹으며 잠시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공원길 곳곳에는 그의 시비가 세워져 있고, '버리고 갈 것만 남아 참 홀가분하다.'라는 그 유명한 구절과도 맞닥뜨린다. 마침 부슬비가 내려서인지 한결 운치가 있다.

길을 따라 10분쯤 오르면 작가가 잠들어 있는 묘소에 다다른다. 관리인이 자주 들여다보는지 묘지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 앞으로 햇살이 환하게 비추고 울창한 나무들이 둘러서 있다.



박경리기념관

-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중앙로 1173
- 전화: (055) 650-2541~3
- 관람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법정 공휴일 다음날

서쪽 벼랑 마을에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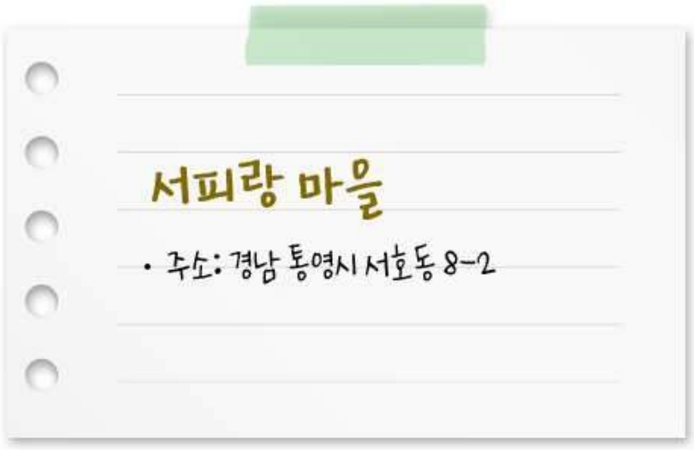
평소 흠모하던 박경리 작가를 만난 여운을 간직한 채 『김약국의 딸들』의 배경이자 그의 생가가 있는 서피랑에 도착했다. 어감이 참 예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토박이말을 살린 지명이란다. 통영말로 '피랑'은 '벼랑'을 의미한다. 서피랑 골목 어귀에는 『김약국의 딸들』에 나오는 서문고개와 관련된 구절을 새긴 표석이 있다. 과거 통영 사람들은 이곳을 '서문으로 오르는 가파른 고갯길'이란 뜻의 '서문까꾸막'이라 불렀다.

서피랑에는 작가의 생가가 남아 있다. 어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벽돌집이다. 현재는 그와 관계없는 사람이 살고 있어 집 안을 둘러볼 수는 없다. 담벼락에 박경리 작가가 태어난 곳이라는 작은 표지판만 붙어 있다.

박경리 작가의 생가가 있는 곳답게, 서피랑에는 그의 어록과 소설에 실렸던 문구들이마을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다. 어쩌면 그저 낡고 오래된 마을로 남았을지도 모를 곳에, 아름다운 문장이 더해지니 빛바랜 담벼락조차 예술 작품처럼 멋이 묻어난다.

삶에 대한 성찰이 담긴 글귀들을 보며 가파른 길을 따라 오른다. 마을 꼭대기의 서포루에 다다르면, 서호동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비탈을 따라 옹기종기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아담한 지붕들이 정겹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어린 박금이(박경리의 본명)가 뛰놀던 곳이라 생각하니 눈앞의 풍경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다.

박경리 작가는 생전에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작가에게 큰 충격을 준다. 통영은 예술가를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곳이다.”라면서 통영에 대한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필자가 보기에도 고향이 통영인 것은 큰 축복이고 특권이다. 삶이라는 스케치북의 첫 장을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의 색채로 흠뻑 물들일 수 있으니 말이다.



서피랑 마을

- 주소: 경남 통영시 서호동 8-2

글·사진: 정성민

쉬어가는 우리말

방언 한 끼

우리말의 재구성

국립국어원
더위를
피하는
방법

국립국어원
무더위를 이겨 낼
작은 지혜가 필요한 한여름입니다.
더위와 관련된 재미있는 방언을
알아볼까요?

국립국어원
냉면이 더우에는
입맛 없는 사람헌테도 개미제.
개미
'가미*'의 전남 방언
"냉면이 더위에는 입맛 없는 사람한테도 가미지."
* 가미: 입에 맞는 좋은 맛, 맛있는 음식

국립국어원
사탕 놔신가 개역이 달다.
개역
'미숫가루'의 제주 방언
"설탕을 넣었는지 미숫가루가 달다."

'불더위'의 강원 방언

"삼복 불더위 지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찬 바람이 도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더위도
조금만 견디면 한풀 꺾일 테니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함께 기다려 봐요!

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2019년 8월 27일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24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위탁 관련 고시」의 내용에 따라 2019년 제1회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험 일정

원서 제출	시험 일자	시험 장소	합격자 발표
2019. 9. 16.(월) 10:00 ~2019. 9. 27.(금) 18:00	2019. 11. 9.(토)	인터넷 원서 제출 시 공지	2019. 12. 6.(금)

※ 원서 제출은 '한국생산성본부 자격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 누리집(홈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영역

① 농문화와 농사회, 한국수어학
②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 실제
③ 강의계획서, 수업계획안, 수업 실연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서이레 작가는 사람들에게서 잊혀가는 것을 재조명하는 데 관심이 많다. 과거 큰 인기를 누렸지만 현재는 간신히 명맥만 잇고 있는 여성 국극*, 그리고 표준어에 밀려서 쓰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는 사투리에 자꾸 마음이 쓰인다.

**국극: 전통적인 판소리나 그 형식을 빌려 만든 가극*

독자들과 전라도 사투리로 소통해요

「정년이(서이레 글, 나몬 그림)」는 주연부터 조연까지 모두 여성 국악인들로 이뤄진 여성 국극단을 소재로 한 웹툰이다. 극 중에서는 소리에 재능을 타고난 소녀 윤정년이 소리로 부자가 되고 싶어 국극단에 들어가 겪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1990년대생인 서이레 작가가 195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여성 국극 이야기를 쓰게 된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책에서 마주한 한 문장 때문이다.

▲웹툰 「정년이」의 한 장면

"대학교 때 현대문학사 수업 시간에 '여성 국극이 있었다.'라는 한 줄을 읽었어요. 재미있는 소재가 될 것 같아서 여성 국극을 다룬 논문들을 찾아봤죠.

여성들이 남성 역할까지 모두 소화했고, 배우들이 지금의 아이돌 가수 같은 큰 인기를 누릴 정도로 1950~1960년대에는 인기 있는 대중문화였다는 점이 흥미로웠 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 점이 너무 의아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지난 4월 네이버에서 연재를 시작한 「정년이」는 늘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의 높은 별점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웹툰으로 다뤄진 적 없는 신선한 주제와 섬세한 그림체, 그리고 주인공 정년이의 구성진 전라도 사투리가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연재 초반부터 정년이가 쓰는 사투리가 신선하고 반갑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독자들이 사투리도 보고 싶어 했다는 걸 실감하죠. 지금은 독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년이의 말투를 흉내 내서 '아따 재미지구마이.' '정년이 멋져부러!'라면서 사투리로 댓글을 달아요. 사투리를 매개로 독자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새롭게 배우는 우리말, 사투리

일부러 주인공의 대사를 전라도 사투리로 설정한 것은 아니다. 여성 국극을 공부할수록 전라도를 배경으로 삼는 게 당연했다. 임춘앵, 박초월 등 유명한 명창들은 거의 전라도 출신이다. 소리꾼의 재능을 타고난 소녀가 여성 국극에 도전하는 이야기라면 응당 전라도를 고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 같았다.

▲ 서이레 작가가 참고한 여성 국극 관련 서적

그런데 장애물이 있었다. 표준어만 써 와서 전라도 사투리를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서 전라도 사투리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1950년대의 전라도 사투리에 익숙해지기란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찾아낸 3대를 이어 온 전라도 토박이에게 매회 감수를 맡긴다. 수정하기 번거로울 때도 있지만 정확한 사투리를 재현하고픈 마음이 더 크다.

▲ 웹툰 「정년이」에는 전라도 사투리가 등장한다.

2년 넘게 도움을 받으면서 사투리를 접하다 보니 변화도 생겼다. 무엇보다 이제는 사투리 대사 수정이 많이 줄었다. 그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사투리를 많이 배웠구나.' 싶어 뿌듯하다고 한다. 또 점점 전라도 사투리의 매력에 눈을 뜨고 있다.

"전라도 토박이들은 '아따', '긍께', '워메'와 같은 감탄사들을 추임새처럼 즐겨 쓰더라고요. 표준어만 쓰던 제게는 이런 사투리들이 대화하는 사람들을 더 끈끈하게 이어 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와 같은 표준어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정겨운 매력이죠."

「정년이」를 쓰면서 알게 된 사투리 중에서는 '쌩콩허다'라는 단어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쌩콩허다'는 '샐쭉하다'의 전남 방언이다.

"「정년이」 10화에 여성 국극 단원인 영서가 연기하는 모습을 본 정년이가 '고 얌전 빼고 쌩콩같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고 얌전 빼고 새초롬하던 애가!'라고 대사를 썼죠. 그런데 사투리를 감수해 주는 분이 '새초롬하던'을 '쌩콩같던'이라고 고쳐 줬어요. 보자마자 새침한 영서라는 인물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감탄했죠. 전 지금도 영서라는 인물을 묘사할 때 '쌩콩허다'란 사투리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1년 후에 이 작품이 끝날 때쯤에는 얼마나 더 많은 재미있는 사투리를 알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웹툰 「정년이」 10화에서 영서가 연기하는 장면

자신이 갖춘 언어의 샘이 사투리로 인해 더 넓어져 기쁘다는 서이레 작가는 평소에도 우리말에 궁금한 것이 많다. 그런 그에게 국립국어원 누리집은 친구 같고 선생님 같은 든든한 존재다.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며 중고등학생들에게 문법을 가르치던 대학생 때부터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애용 중이다.

"특히 온라인가나다 상담 사례를 자주 봐요. 사람들의 질문과 국립국어원의 답변을 읽다 보면 유용한 정보를 많이 알게 돼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궁금해 하는지 알 수 있는 점도 재미있어요."

서이레 작가는 앞으로 지금은 사라진, 하지만 한때는 뜨거웠던 문화를 되돌아보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 과정에서 사투리는 늘 함께 있어야 할 존재이고, 그래서 계속 공부해 나갈 생각이다.

"사투리도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소중한 우리말인데 비주류의 언어처럼 여겨져서 너무 안타까워요. 특히 대중 매체에서 다양한 사투리를 들을 수 없어 아쉽습니다. 지금도 여러 프로그램에서 사투리가 쓰이지만, 그 빈도가 낮고 특정 지역 사투리에 치우쳐 있는 편이에요. 다양한 지역의 말을 더 쉽게 자주 접하다 보면 우리가 쓰는 말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글: 정성민
그림 제공: 서이레, 나몬

놀라운 우리말

우리말을 여행하다
찰나의 우리말

국립국어원은 한국어와 관련한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온라인 가나다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가나다에는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그 가운데 표준어의 장단과 관련된 질문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단어의 장단을 묻는 간단한 질문부터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표준 발음법에 왜 장단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묻는 저항 의식이 가득한 질문까지 아주 다양하다.

장단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표준어 화자들이 장단에 대한 의식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아마 표준어 화자들이라면 누구나 학교에서 장음과 단음의 구별이 있다는 내용을 배우면서 뭐가 장음이고 뭐가 단음인지를 익히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왜 이런 것을 배워야 하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장단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 한다. 이번 달에는 첫 번째 꼭지로 과연 장단은 누가 지키는지를 알아보고, 다음 달에는 두 번째 꼭지로 과연 장단의 전통성은 신화인가 역사인가, 그리고 장단은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장단은 과연 누가 지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일화를 먼저 만나 보자.

첫 번째 일화는 언젠가 경북이 고향인 한 사람에게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들은 것이다. 그 사람은 대학에 진학하면서 서울에 오게 되었는데, 어느 날 서울 친구가 '이동 막걸리'를 먹으러 가자고 했단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오니 신기하고 흥미로운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동 막걸리'를 먹으러 가자는 친구의 말을 듣고 서울에는 별 게 다 있구나 생각했다고 한다. '이동 막걸리'를 움직이는 막걸리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막상 막걸리를 마시러 가 보니 움직이는 막걸리는 어디에도 없었고, 그냥 막걸리의 상표에 '이동 막걸리'라고만 적혀 있을 뿐이었단다. 그래서 왜 이 막걸리의 이름이 '이동'이냐고 물었더니 포천 2동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즉, '이동'은 움직인다는 뜻의 '이동(移動)'이 아니라 1동 다음에 있는 2동(二洞), 즉 숫자 2의 의미를 가진 단어였던 것이다. 자신의 고향에서는 1동 다음의 2동은 길게 발음하기 때문에 서울 사람이 짧게 발음한 '이동'이 자신에게는 움직인다는 뜻으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음 일화는 필자가 경상 방언 화자인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던 중에 겪은 것이다. 시어머님께 뭔가 말씀을 드리고 있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말을 막으시며 "야야, 그 말은 '빼서' 해야지."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 했다.

필자가 뭔가 잘못 말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기는 한데, 뭘 잘못 말했다고 하시는지 그 짧은 말씀만 들어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리둥절해 하는 필자의 표정을 읽으셨는지 시어머니께서는 문제가 된 단어의 발음을 몸소 들려주셨다. 그리고 문제의 그 단어는 '빼서' 말해야 한다고 덧붙여 주셨다. 물론, '빼서'의 '빼'를 아주 길게 발음하시면서 말이다.

시어머니께서는 필자가 한 말 중에서 한 단어를 잘못 알아들으셔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잠시 못 알아들으셨던 모양이다. 그런데 못 알아듣게 된 원인이 필자의 발음, 즉 장음으로 길게 '빼서' 발음해야 할 것을 단음으로 발음한 탓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당신의 언어로 필자에게 알려 주신 것이다.

위에 든 두 가지 일화는 모두 서울 방언 화자들이 장단을 지켜 말하지 않음으로 해서 장단 의식이 있는 경상 방언 화자들과의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생긴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 방언은 음높이에 따라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특징을 갖는다. 음높이가 낮은지, 높은지, 혹은 낮았다가 높아지는지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그런데 낮았다가 높아지는 음높이 특징을 가진 단어들은 잉여적으로 길게 발음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위의 두 일화는 바로 그런 특징을 지닌 지역 사람들과 표준어 화자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 일화들을 통해 정작 장단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표준어 화자가 아니라 비표준어 화자인 경상 방언 화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표준어 화자들이 실제 발음에서 장단을 잘 구분하여 발음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찰은 이미 표준 발음법의 해설에도 나와 있다. 표준 발음법 제1항은 표준 발음법의 기본 원칙을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해설을 통해 실제 발음이 아니라 전통성을 고려하여 정한 예 중의 하나로 모음의 장단을 들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장단 설정의 근거를 기술한다.

> 현실 발음에서는 모음의 장단이 정확히 구별되지 않거나 모음의 장단과 관련된 변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음의 장단은 이전부터 오랜 기간 구별되어 왔으며 단어의 의미 변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에서는 모음의 장단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두었다.
>
> *표준 발음법 제1항 해설 중에서*

해설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실 발음에서 장단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2) 오랜 기간 구별되어 왔고 3) 단어의 의미 변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기에 4) 현실성은 없으나 5) 그 전통성을 인정하여 표준 발음법에서 '음의 길이' 즉 장단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해설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표준 발음법이 만들어진 1988년 당시에도 이미 장단의 구분이 표준어에서 현실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표준어에서 장단의 구분이 현실성을 잃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1960년 출간된 이숭녕 선생의 「현대 서울말의 accent의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대 최고의 음운론 연구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숭녕 선생은 자신이 서울 태생의 서울말 화자로서 누구보다 서울말의 특성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서울말의 경우 단음절어에서는 비교적 장단의 식별이 가능하지만 이는 오히려 특이한 것이고 다음절어의 경우에는 일부 1음절의 장모음에 대한 미약한 의식을 제외하고는 길이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시대적인 발달 단계에 들어섰다고 기술한다. 그래서 2음절어에서 1음절 장음을 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전혀 기이할 것이 없고 오히려 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우세하다고까지 논문에는 기술되어 있다.

논문을 썼던 당시 이숭녕 선생은 만 51세, 즉 서울말 장년층 화자였다. 논문에서 당시 장년층 화자들도 장단의 인식이 뚜렷하지 않다고 하고 있으니, 청년층 화자들의 경우는 장단에 대한 인식이 훨씬 희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제 논문에도 연소층(年少層)의 장단 의식이 상대적으로 더 희박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표준 발음법이 제정된 것은 1988년으로 이숭녕 선생의 논문이 나온 해로부터 28년이 지난 후이고, 2019년 지금은 그 논문이 나온 해로부터 59년이 지난 후이다. 그렇다면 1960년에 20대 청년층은 1988년에는 50대 장년층이, 그리고 2019년에는 80대 노년층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한편, 1960년대 50대 장년층은 1988년에는 80대 노년층이 되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주 너그럽게 봐서 1960년대에 50대 장년층이 장단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던 가장 윗세대이고 20대 청년층이 장단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첫 세대라고 가정하더라도, 2019년 현재 그 청년층은 이미 노년층이 되어 있을 테니 장단을 구분하는 표준어 화자는 현재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장단의 구분이 젊을 때는 없다가 나이가 들면 생기게 되는 요소가 아닌 한 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현재 표준 발음법에 맞게 장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표준어 화자가 아니라 비표준어 화자라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지금 '장단은 누가 지키나'에 대한 현실적인 답은 '비표준어 화자'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표준 발음법에 기술되어 있는 소리의 길이는 표준어 화자들에게는 지킬 수 없는 비현실적 규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발음법에서 장단을 인정한 이유는 장단이 비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성을 지니며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해설되어 있다. 그렇다면 장단은 어떤 전통성을 갖는가, 그리고 의미 구별에 있어 정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차례가 되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달에 이어가겠다.

글: 신지영(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쉬어가는 우리말

방언 한 끼
우리말의 재구성

국립국어원
우리말의 재구성
시원차림

국립국어원
회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옷이 흠뻑 젖어 버렸네.
이런 더위에 긴팔 정장이라니 너무 비효율적이야. 회사에 시원차림을 하자고 건의해야겠어!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이런 때 간소한 '시원차림'은 필수죠.

국립국어원
대표님, 우리 회사도 여름에는 시원차림을 허용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직원들의 능률이 훨씬 오르지 않을까요?

국립국어원
우리 회사도 이제부터 여름에는 거추장스러운 정장과 넥타이에서 벗어납시다!
시원차림으로 출근하니까 일할 맛이 나네요.

국립국어원
드디어 답답한 정장에서 해방이구나!
시원차림하고 신나게 일해 봐요!

국립국어원
'시원차림'은 '쿨비즈'를 다듬은 말로,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격식을 유지하면서도 시원하게 입는 옷이나 옷차림'을 뜻합니다.

국립국어원
덥고 답답한 옷차림은 이제 안녕!
'시원차림'으로 더위를 훌훌 날리듯,
누구나 금세 이해하는 쉬운 우리말과 함께
시원하고 쾌적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 봐요.